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24일)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중공의를 수렴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당선

235표로 확정… 당선증 교부 후 임기 시작

당선 직후 고불 · 기자회견
"사부대중 믿고 새불교 열 것"
원로회의 인준 10월 2일 예정
쟁점 없어 부결 가능성 낮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前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의 소감이다. 원행 스님은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235표를 얻어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투표에는 선거인단 318명 중 315명이 참여했으며, 무효표는 80표로 집계됐다.

원행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 스님의 당선 발표에 이어 당선증을 교부받고 공식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총무원장 궐위에 따른 것으로 기존과 달리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원로회의 인준은 10월 2일 예정돼 있지만 원행 스님이 현재 공식적인 임기에 돌입한 데다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같은 쟁점사항이 없어 인준 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원로회의 결과 차주상보〉

원행 스님은 당선 이후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전에 고불을 올리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현재 조계종이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사부대중의 공의에 따라 종단운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스님은 "소납은 제36대 총무원장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종단 과제 해결을 위해 승가복지와 종단화합,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탈종교화 현상으로 출가자 및 불자 수는 감소하고, 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 "사부대중 공의를 적극 수렴해 직무를 해나가겠다.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원행 스님은 선거제도 변화와 공의 수렴에 무게를 실었다.

원행 스님은 선거 후유증 해소방안과 선거제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공의를 모아 다수가 바라는 선거제도를 따르는 데 힘쓰겠다"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기에 그들이 공론의 장에 나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에서 원행 스님이 획득한 235표를 두고 예상보다 적다는 견해도 대두된다. 선거를 이틀 남긴 상황에서 경쟁후보였던 혜총 · 정우 · 일면 스님이 동반 사퇴하면서 사실상 원행 스님의 당선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찬반투표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효표가 80표에 달하는 것은 원행 스님을 지지하지 않는 교구본사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 원행 스님 측 인사 중 한 스님은 개표결과가 발표된 후 "아슬아슬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투표가 진행되던 현장에서는 250표 이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신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무효표를 던진 교구본사들과 향후 어떤 교감을 통해 종단 화합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 기사 및 칼럼 2 · 3 · 19면〉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부실장 인사

총무 금곡 · 기획 오심 · 재무 유승 · 문화 현법 · 호법 성효 · 사서 삼혜 스님


금곡 스님 오심 스님 유승 스님 현법 스님 성효 스님 삼혜 스님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이 첫 공식일정으로 총무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고 집행부 진용을 갖췄다.

원행 스님은 9월 28일 총무원장 당선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부장에 금곡 스님, 기획실장에 오심 스님, 재무부장에 유승 스님, 문화부장에 현법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성효 스님, 사서실장에 삼혜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 및 보광사 · 흥천사 · 선암사 주지,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낙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다. 신광사 · 월봉사 주지 및 불교중앙박물관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재무부장 유승 스님은 보우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수계했다. 석남사 정수선원 · 위봉사 위봉선원 · 불영사 천축선원 · 운문사 문수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봉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문화부장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개태사 · 보승사 주지 및 제13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김포 용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호법부장 서리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용덕사 주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및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사서실장 삼혜 스님은 택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했다. 삼장사 · 금당사 주지 및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법당 '세계선원' 개원

10월 4일 개원 법회

세계로 나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새로운 사찰이 탄생했다.

인천공항청사불자회 등은 10월 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새 법당 '세계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2001년 개청한 이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불교법당인 광제사가 있었지만 다소 외진 곳에 있어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새로운 법당은 인천공항 경찰단의 경승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승실장 법호 스님과 부실장 법현 스님, 그리고 인천공항 측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이번 법당 개설을 주도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인천공항 법당은 다른 곳에 비해 늘 나올 수 있는 신도가 구성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직원이나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본관 지하1층에 종교실이 있으며 이번 세계선원 왼편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실도 들어선다.

세계선원은 여행객들이 참배하고 좌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 각 단체들의 해외성지순례시 안전법회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당을 관리할 법호 스님은 "세계선원은 24시간 개방하여 방문하는 불자들이 예불, 참선, 독경 등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매주 정기법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공모

10월 31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0월 31일까지 제30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

포교대상은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이나 개인,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교구본사 주지나 포교 · 신도단체 대표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소정양식의 추천서와 포교활동 공적서, 이력서, 각종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0월 31일까지 포교원 교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농선 대원선사
복원출가
고 불 식
弄禪大圓禪師
復原出家告佛式

조계종 수덕사 문중 경허 · 만공선사님으로부터
전강선사님으로 이어진 법맥과
용성선사님의 강맥을 받으신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승가의 맥으로
법맥을 이어주기 위하여 복원출가하시는
원력을 받들어 고불식을 봉행하오니 수희동참바랍니다

장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78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시간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81권 화엄경 역경불사 현재 28권 출간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 불사문의 : 010-3880-8980 / 무료 전자책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